

진흥컬럼

송화자 전화번호  
표시기능의  
전화기  
사용허가를  
고대하면서



金 貞 欽  
高麗大 名譽教授/理博

빈집털이의 새 사냥감

옛날의 빈집털이는 빈집에 들어가 신발이 며, 은수저, 라디오, 시계, 그리고 현금이나 은행통장 등 닥치는대로 눈에 띄는 것은 모두 훔쳐갔다. 그러나 정보화사회가 도래되는데 따라 도적들의 사냥감(?)은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유형재에서 무형재로 말이다.

예컨데 농경사회에서의 가치의 중심은 부동산인 땅, 따라서 그 땅에서 생산되는 쌀이었다. 그래서 도적들도 쌀이나 된장, 간장 등 먹을 거리를 훔쳐갔다.

그것이 산업화사회가 되면 가치의 중심은 동산인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옮겨간다. 돈이면 무슨 물건이나 살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라디오, TV, 시계 등 쉽게 내다 팔 수 있는 물품이 도적들의 사냥감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뒤바뀌어 정보화 사회가 되면 가치의 중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무형의 물재인 정보로 옮겨가게 된다. 그 결과 빈집털이의 목표물(사냥감)도 눈에 띄는 물품이나 현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라던가 또는 그 정보의 전달수단자체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남의 전화회선을 공짜로 이용

예컨데 PC(개인컴퓨터)통신을 써서 남의 컴퓨터시스템에 몰래 침투해 들어가서 유용한 정보를 가로채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또 남의 단말기에 침입해 들어가, 그 단말기의 주인이 갖고 있는 몇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비밀번호로 그 주인이 번역할 수 있는 그러나 엄중히 기밀조치가 취해서 있을 거대 컴퓨터시스템에 파고 들어가 엄청난 비밀을 훔쳐가는 조직적 컴퓨터 범죄자들도 있다. 예컨데 1989년에 출판되자 베스트 셀러가 된 Clifford Stoll의 「The Cuckoo's Egg—Tracking a Spy through the mage of Compu-

ter Espionage——, John Brochman Associates, Inc. N. Y.」란 책에 그 자세한 수법이 쓰여져 있다.

이 경우도 말하자면 일종의 빈집털이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빈집털이 줌도적들 hacker라고 함)은 상대방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말하자면 부재중) 틈을 타서 그 컴퓨터에 침입해 들어감으로 일종의 빈집털이였던 것이다.

또 기한 경우에는 은행시스템으로 파고 들어가 남의 계좌의 예금을 임시로 만든 가공의 계좌로 옮긴 후 그 예금을 몽땅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 자체를 은행컴퓨터의 기억장치로부터 몽땅 제거해버리는 고도의 지능적수법마저 사용되고 있어 은행 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또 이렇게 고도로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것이 아니라, 줌도적과도 같은 빈집털이도 가끔 발생하고 있어 컴퓨터사회 또는 정보화사회의 신종 범죄의 하나로 클로уз업되고 있다.

그 수법이란, 남의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침입해 들어가 장거리전화나 국제전화를 마구 거는 경우이다. 물론 부재중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음으로(이런 도적은 물품이나 현금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그 집 주인은 도적이 침입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연 모른다. 다만 월말이 되어 전화요금의 청구서가 왔을 때 유난히 요금이 많구나 하고 의아해 할 뿐이다.

더구나 이 전화요금이 은행과의 약관에 따라 자동불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집 주인은 전연 그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 컴퓨터화·자동화시대가 몰고온 어처구니 없는 허점이었던 것이다.

빈집털이가 아니더라도 남의 전화회선 마구쓰기

물론 이와 같은 빈집털이식의 남의 전화회

선 무단차용은 전화국에 문의하면 상대방 통화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어 쉽게 그 줌도적을 추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줌도적은 어린 청소년에 많아 장난삼아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다. 그결과 예상한것 처럼 쉽게 상대방을 추적할 수가 없게 된다.

또 약방이나 구멍가게 또는 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다방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옛날부터 손님들의 전화차용을 극히 경계하여 왔다. 시내전화인줄 알고 빌려주었더니 장거리전화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경계하면 손님들을 기분 나쁘게 함으로써 고객을 잃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점포에서는 보통의 경우 반드시 공중전화를 설치하였거나, 또는 수화기에 동전을 넣어야만 다이얼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는 아예 호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있다.

그러나 시내전화도 최근에 와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시내전화도 옛날처럼 시간적으로 무제한으로 길게 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해서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화차용을 두고 인심이 박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옛날처럼 전화하면 시내 전화에 한정이 되어 있어,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를 걸때는 반드시 교환수를 거쳤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누구나 단추만 누르면 즉석에서 세계의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인 만큼 남의 전화를 빌린다면, 남에게 전화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렇게 뜻하지 않았던 미묘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협박전화를 거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사생활 침범인가?

또 전화 대중화시대에 야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에 송신자전화번호 명시 문제가 있다.

예컨데 전화를 통해 협박해오는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낼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

이다. 逆探針法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상대방이 장시간 계속해서 통화를 해오는 경우, 수분 또는 십수분이나 걸려서 경찰의 협조를 얻은 후 전화국 사람들이 바빠 계기를 조사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박자들은 생각보다는 지능적인 사람들이다. 용건만 이야기 하고는 전화를 곧 끊어버린다.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심리로서 스스로의 정체가 노출되기를 매우 꺼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술적으로는 의외로 간단하다. 디지털방식을 써서 전화기자체 표시창을 만들고 표시창(액정표시)에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송화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외국의 경우 이미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나라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진 않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화를 걸면서도 자기신분의 전화번호는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자기전화의 번호가 알려지면, 그 번호가 제3자에 누설이 되고, 그 결과 협박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고, 반감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장난전화 또는 듣고 싶지 않은 전화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에는 자기집 전화번호를 공개하기가 싫어 전화번호부에도 일부로 게재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반대로 협박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가? 또는 협박전화는 아니더라도 장난전화가 쌍스러운 내용이라면 어떨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 협박자 그 작동자의 Privacy(사생활)을 보장해 주어야만 하는가?

야밤중에 걸려오는 장난전화에 계속해서 깜짝 놀라야만 하는가?

또 필자의 경우 이따금씩 걸려오는 장난전화에 어쩔바를 모를 때가 있다. 그 장난 전화는 반드시 오전 1시 30분 중에 걸려온다.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선생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 청년의 장난전화(?)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필자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대꾸를 했지만, 알고보니 그냥 전화기를 붙들고 무작정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나를 존경한다면 제발 밤중에 자는 사람을 깨우지는 말고 낮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해도 막 무가내고 대화를 계속한다.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줄터이니 전화번호를 대달라고 하면 「저를 경찰에 고발할 생각입니까?」하고 응하질 않는다. 그래서 「나도 자야겠으니 전화를 끊겠소」하고 전화를 놓으면 한 5분이나 10분쯤 있다가 다시 걸려오는 것이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말씀해주세요.」하고 귀찮게 하는 이 청년은 과연 누구일까? 逆探針의 방법이 없으니 매번 이런 꼴을 계속 당하여야만 하는지?

그렇다고 협박전화도 아닌 이런 전화, 그것도 필자를 존경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을 무슨 범죄자인양 경찰서에 신고하고 또 전화국의 여러 사람의 밤잠을 깨워가면서 逆探針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하도 여러번 당했길래 지금은 오전 1시반 전후에 걸려오는 이 청년(아마도 좀 머리가 둔 정신이상자가 아닌가 추측도 된다)의 말소리만 들어도 또 왔구나 하고 곧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다. 어쨌든 상대방이야 나를 존경하건 말건, 깊은 잠에서 깨어난 필자에게는 어처구니가 없는 재앙이기도 하다. 어떻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상대방 청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병치료를 부탁하고 싶어서 말이다.)

이 경우에도 남의 깊은 잠을 깨우고는 혼자서 회열을 느끼곤하는 이 머리가 좀 돈것 같은 청년의 장난을 도와주기 위해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하에 逆探針이 가능한 송신자 전화번호 표시기 전화기의 제조 및 사용을 계속해서 법으로 막아주어야만 하는지?

정보화시대에는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새 관습과 새 법을 만들어야만 한다.

사생활(Privacy)의 보호는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몇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훨씬 많은 사람이 협박이나 장난 전화로 인한 고통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그 협박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해 적절한 대응책을 꾸미지못해 이미 몇사람의 어린 아이가 죽음까지 당하고 있다. 또 많은 여성들이 심야에 걸려오는 쌍스러운 음란전화에 골치를 앓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그 음란전화에 충격을 받아 정신이상 이 생긴 처녀도 있고 자살까지 한 처녀도 있

다(외국의 경우, 국내의 경우는 PC통신을 통한 음란통신문에 충격을 받아 자살한 경우가 있다).

이제 시대는 지나 옛날의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지켜야만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예컨대 전화번호를 逆探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서는 국방에 관한 중요한 비밀이 해커(hacker)들에 의해 탐지되어 동구나 구소련에 많이 유출되는 사건이 여러번 일어나고 있다. 「남에게 전화번호가 알려지기를 싫어하는」 몇몇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밀이 현재 PC통신에 의해 훔쳐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현재 법체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만 같다.

그러니 제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하루 빨리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협박전화 장난전화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송화자 전화번호 표시기능을 가진 전화기의 제조와 사용이 하루라도 빨리 허용되기를 부탁한다.

